“13살 큰누나가 영웅”…아마존 4남매 기적의 생환

비행기 추락 40일만에 구조
원주민 출신 정글 생존법 알아
콜롬비아 대통령 “나라의 기쁨”

아마존 열대우림 한복판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이후 행방불명됐던 아이 4명이 40일 만에 무사히 구조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9일(현지시간) 아마존 정글에서는 지난달 1일 실종됐던 레슬리 무쿠투이(13), 솔레이니 무쿠투이(9), 티엔 노리엘 로노케 무쿠투이(4), 크리스틴 네리만 라노케 무쿠투이(1) 등 4명이 발견됐다.

이들은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긴 했으나 그 외 건강에 문제는 없었다.

아이들은 지난달 1일 타고 가던 소도시 산호세델 과비아레행 소형 비행기가 콜롬비아 남부 아마존 정글에 추락하면서 실종됐었다. 해당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이 아이들을 제외한 조종사, 성인 승객 2명 등 어른 3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은 구조 당국이 수색 작업 중 공중에서 떨어뜨린 생존 키트들이 아이들이 버티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키트에는 음식을 비롯한 각종 물품이 들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를 발견해 활용한 덕에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을 거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구조 당국은 아마존 정글 수색 도중 아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아용 젖병과 먹다 남은 과일 조각 등을 찾아낸 바 있다.

이 아이들이 남미 원주민 후이토토족 출신이라는 점도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후이토토족은 콜롬비아 남동부, 페루 북부 등에 사는 원주민이다.

콜롬비아 바우페스 지역의 원주민 지도자 존 모레노는 “이곳은 원시림으로 울창하고 위험한 곳”이라면서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공동체에서 얻은 지식, 즉 조상의 지식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지 구조 당국은 네 아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레슬리가 열대우림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조 당국은 또 아이들 할머니가 후이토토족 언어로 “더 이동하지 말라”고 외치는 걸 녹음해 이를 헬기로 방송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아마존에서 생존한 것에 앞서 어떻게 비행기 추락에서 살아남았는지도 큰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비행기 뒷좌석에 탑승한 덕에 추락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추락 당시 비행기는 앞머리에서부터 땅에 처박혔다.

이 때문에 비행기 앞쪽 좌석에 앉은 조종사 등 성인 3명은 모두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앉았던 뒷좌석 3개 중 2개는 추락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똑바로 고정돼 있을 정도로 상태가 멀쩡했다.

추락 당시의 물리적 충격이 뒷좌석에는 크게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콜롬비아 민간항공청이 작성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불과 1세로 탑승객 중 가장 어렸던 크리스틴은 추락 당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던 덕에 추락 당시 크리스틴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기적의 아이들’ 4명은 10일 현재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로 무사히 이송됐다. 이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받을 예정이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아이들의 생존 소식에 트위터에 ‘온 나라의 기쁨’이라고 썼다.

콜롬비아 군 당국이 명명했던 이 아이들 구조 작전명은 ‘에스페란사’ (스페인어로 희망이라는 뜻)다. /연합뉴스

트럼프 잇단 기소 불구
대선 경선 지지율 고공행진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법당국의 잇단 기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성관계 입막음 혐의로 뉴욕 검찰이 기소한 데 이어 지난 9일 기밀문서 반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또 기소됐다.

미국 CBS 방송이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7~10일 실시해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 가운데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3%였으며 팀 스콧 상원의원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각 4%,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3%를 기록하는 등 디샌티스 주지사 외에는 모두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복수로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화당 지지자 7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51%, 펜스 전 부통령은 16%, 헤일리 전 주지사는 15% 등을 각각 기록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대다수(8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번 기소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7%만 ‘나쁘게 바뀌었다’고 답했다. 61%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14%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억만장자 가장 많은 도시
136명 거주하고 있는 뉴욕
10위내 중국 도시 3곳 포함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미국 뉴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1일(현지시간) CNBC 등이 보도했다.

자산정보업체 웰스X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조사 대상 억만장자의 29%인 136명이 뉴욕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 2명 줄어들었지만, 또 한 번 세계 1위를 기록해 ‘억만장자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지켜냈다.

억만장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 2위는 홍콩으로, 역시 전년 대비 2명이 감소해 112명을 기록했다.

컨설팅 업체 ECA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홍콩은 외국인들이 살기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다만 최근 내부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면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위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전년보다 1명 줄어든 84명이 이곳에 터를 잡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2022년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지난 3월 웰스X 조사에 따르면 거주자 505명 중 1명은 초호화 주택 소유자다.

이밖에 러시아 모스크바가 4위를 기록했고, 중국 수도 베이징과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도 각각 6위, 9위에 올랐다. 중국 도시가 10위권에 3곳인 셈이다. /연합뉴스

토마토 축제 즐기는 콜롬비아 주민들 1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중부 보야카에서 주민들이 제10회 토마토 축제 ‘토마티나’(Tomatina)를 즐기고 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반격 첫 성과…동부 격전지 도네츠크 3개 마을 탈환

러시아군을 상대로 반격 작전을 개시한 우크라이나군이 11일(현지시간) 동부 전선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도네츠크주(州) 블라고다트네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주의 또다른 마을인 네스쿠흐네도 점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및 남부 전선을 따라 진격하며 반격 작전을 시작한 뒤 발표한 첫 성과로 평가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육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68 특전여단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남쪽에 있는 블라호다트네 마을을 해방시켰다고 밝혔다.

발레리 셰르셴 육군 대변인은 자국 TV 방송에 “탈환된 마을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지역의 경계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국기가 이 마을에 게양됐다”면서 “러시아군과 친러시아 무장세력 일부를 포로로 붙잡았다”고 전했다.

블라호다트네는 동부 전선의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다. 수많은 포격과 교전 속에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된 상태다.

지난해 러시아가 점령했던 이 마을은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의 탈환 시도 속에 여러 차례 교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전해졌다.

동부 최격전지인 바흐무트로 연결되는 보급로로서 가치가 있고 남쪽으로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마리우폴과 95㎞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유나바머’ 美 폭탄 테러범
카진스키 사인 자살 추정

‘유나바머’로 알려진 미국의 폭탄 테러범 테드 카진스키의 사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CNN은 11일(현지시간) 연방 교도소 관계자들이 카진스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식적인 사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진스키는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교도소 감방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으며 의료시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인명 구조 조치를 시작하고, 응급 의료 서비스를 요청했다”며 “카진스키는 지역 병원으로 이동했고 의료진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1942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카진스키는 16세 때 하버드대 수학과에 입학하고 24세 때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최연수 수학 교수로 임명되며 학계의 인정을 받은 천재다.

그는 기술 문명과 산업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1978년부터 1995년까지 대학과 항공사 등에 소포로 사제폭탄을 보내 3명을 숨지게 하고 23명을 다치게 했다. /연합뉴스